

한국가금학회지의 발전 방향

최 양 호^{1,2,3}

¹경상대학교 축산학과, ²대학원 응용생명과학부, ³농업생명과학연구원

The Present and the Future Directions of the Korean Journal of Poultry Science

Yang-Ho Choi^{1,2,3}

¹Department of Animal Science, ²Division of Applied Life Science, and ³Institut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900 Gajwa-dong, Jinju 660-701, Korea

한국가금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가금학회지는 학회 창립 이후 처음으로 2009년 12월 25일 한국연구재단의 “2009년도 학술지평가 계속평가”에서 “등재지”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한국가금학회지를 “등재후보지”에서 “등재지”로 격상시키려는 한국가금학회의 오랜 노력과 바람이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금년도에 본 학회지에서 발행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등재지 논문”이란 한 단계 격상된 평가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등재후보”지라는 것 때문에 한국가금학회지에 투고를 꺼리는 회원 및 비회원들의 잠재적인 우려에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 학회의 최대 현안이 해결됨으로써 한국가금학회지의 앞날에 과연 장밋빛 탄탄대로만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의문의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먼저 우리 학회지의 현재 모습이 어떠한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과거 5년간 한국가금학회지에서 출판되었던 논문을 검토하였으며, 또한 1995년에서 1999년 사이에 출판된 논문의 수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지난 2년간 편집위원장직을 수행해오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것을 몇 가지 기술하려고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한국가금학회지의 가장 큰 변화는 외형적 크기 변화이다. 1999년까지는 크기가 187 × 257 mm이었던 것이 2000년 (제27권) 제1호부터 210 × 280 mm로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크기의 변화와 동반하여 출판되는 논문의 수가 점차 늘어나 최근 5년 동안에 논문 수에서 89%가 증가되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1995~1999년에는 총 108편, 즉 연간 평균 21.6편이 출판되었고, 연간 최소 20편에

서 최대 23편이 출판되었다. 그러나 정확히 10년 후인 2005~2009년 사이에는 총 204편 (본고 제외), 연간 평균 40.8편 및 연간 최소 40편에서 최대 43편이 출판되었다.

그러나 한국가금학회지의 이러한 비약적인 외형적 성장이나 개량적인 측면에 비하여, 내적인 성장 즉 질적인 성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되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한 학회지의 질적인 내용은 “등재 학술지의 내용평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등재”지로 선정된 이후 있게 될 한국연구재단의 평가를 위하여 신중히 대비하여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 [적요]에 관한 것이다. “게재된 논문과 함께 발행되는 초록은 논문의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보여주어야” 하며 “논문 초록의 질적 수준”의 평가에서는 이에 관한 것이 평가대상이 된다. 초록 또는 적요에 관해서 “한국가금학회 논문 투고 규정”에는 “영문적요는 250단어 이내” 및 “한글 적요는 한글 800자 이내로 줄 바꿈 없이 표시”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규정을 벗어난 논문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 규정에 올바른 적요가 출판될 수 있도록 앞으로 투고자 및 편집위원회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영문 적요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원어문의 교정 체제의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셋째, [재료 및 방법]이 좀 더 자세하고 그리고 정확히 기술될 필요가 있다. 독자가 출판된 논문을 참고로 실험 또는 분석을 행하려고 할 때 종종 재연성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실험 설계에 적절한 통계 분석이 수행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이 종종 검토위원들에 의해

†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 yhchoi@gnu.kr

지적되고 그러한 이유로 게재되지 못하는 논문을 종종 보아 왔다.

넷째, [결과 및 고찰]은 우리 모두가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현재 우리 학회지에서 출판되는 다수의 논문에서는 결과와 고찰이 하나의 표제로 기술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소수의 제외는 존재하지만 “질적 수준이 높은” 국내의 학술지에서 출판되는 논문에는 대부분 결과와 고찰이 분리되어 결과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이 “고찰”이라는 별도의 표제하에서 기술된다. 결과 및 고찰이 “하나의 표제 하에 옴으로써 사실상 결과 중심의 기술, 즉 고찰이 간과될 수 있는 논문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정규 논문 — 연구보고(article) — 에서는 [결과 및 고찰]을 별도의 표제로 하고 연구노트 (research note) 에는 이들이 하나의 표제 하에 올 수 있도록 하는 “한국가금학회 논문 투고 규정”의 개정이 논의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다섯째, “참고문헌(각주)의 서지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완성성”은 또 다른 “등재(후보)학술지 내용평가” 항목 중의 하나이다. 지난 2년 동안 투고된 논문에 있어서 서지정보에 대한 오류를 흔히 접해왔다. 저자들이 이러한 오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한 방법은 서지정보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지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논문에 서지정보를 입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몇 분단위로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투고자들 사이에 서지정보관리 소프트웨어가 널리 사용되었으

면 한다.

여섯째, 검토 위원수의 저변 확대 문제이다. 이것은 학술지 평가에서 “투고 논문 심사 제도의 구체성 및 엄정성”과 관계된다. 현재 우리 학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을 3인의 검토 위원에게 논문의 게재 여부를 평가하도록 의뢰한다. 이러한 것은 자연히 특정 검토 위원이 검토해야 할 논문 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따라서 논문 검토가 많은 다른 잡무 중의 하나로 취급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될 때 검토의 질적 저하가 예상될 수 있다. 향후 학회의 내·외부로부터 많은 검토위원을 확보하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빈약한 검토위원 수는 논문 검토 결과의 질적인 균형을 담보하는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즉, 논문의 내용에 어울리는 전문가의 부족으로 “수정제재” 가능한 것이 “게재불가”로 결정되거나 또는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재투고 권장”으로 되어야 할 논문이 역으로 “수정제재”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정부당국의 정책적 의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난 2년간 우리 학회지의 제1호에는 “한국가금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그리고 제3호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을 게재하여 왔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우리 학회지가 “등재지”로 승격되는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확신한다. 문제는 앞으로이다. 외국의 학술지처럼 투고되는 각각의 논문에 “본 연구는 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수행되었다.” 혹은 이와 유사한 “선언”이 기술되도록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학술지 평가에서 “연구윤리 강화 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강화 활동에 대하여 실적이 있는 경우 기술하여 주시기 바람”이라는 항목이 있고 향후 평가에서 우리 학회지의 “등재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형태로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2005~2009년 사이에 출판된 논문을 분석했을 때 발견되는 특징은 투고논문의 지역 또는 연구기관 편중성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을 포함한 농촌진흥청에서 21.6%, 대전 충남 지역에서 16.7%, 전북 지역에서 13.7%, 경기 지역에서 12.3%, 대구 경북 지역에서 7.8%,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는 7% 미만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 앞에서 언급된 상위 4개 지역 또는 연구기관만이 지난 5년간 매년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논문의 투고자가 특정지역 또는 특정기관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는 단지 한국연구재단에서 학술지를 평가할 때 “논문 투고자의 국내·외 분포도”가 평가 요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만은 아니며, 오히려 한국가금학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논문 투고자가 국내·외에 고르게 분포됨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드러나는 현상은 투고 논문의 국내 편중성이다. 즉, 지난 5년간 외국에서 투고된 논문은 단지 4편 밖에 없었다. 한국가금학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논문이 해외에서 투고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충지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등재지”로의 격상은, 그것으로 목표가 달성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켜나가야 할 고지의 하나이며, 새로운 고지로 향하는 중간점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것들이 회원들 사이에서 자발적 논의와 발전적인 방향으로 수용, 실행된다면 한국가금학회지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